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적절한 관리 평가¹⁾

1. 연구 배경

-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은 만성 염증성 기도 질환으로 비가역적인 기류제한을 유발하는 질환임
- COPD는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조기 발견과 중재의 중요성이 강조됨
 - ▶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COPD로 인한 입원을 예방할 수 있음
 - ▶ COPD 치료에 대한 국제적 동향은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가이드라인이 COPD 환자 이환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됨
- 본 연구는 COPD 환자의 치료 질을 향상하고, 질병의 중증도 완화 및 의료 혜택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COPD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사용하여 COPD 약물의 비용과 의료이용을 분석함
 - ▶ 평가대상은 병원, 의원, 보건기관 등으로 COPD 외래 진료 청구 건이 있는 기관임
- COPD 평가 대상은 연령이 40세 이상, 진단코드가 J44.x, J43.x 임. 그리고 연간 2회 이상 COPD 약품을 사용하고, 입원 시 경구 또는 정맥내 코티코스테로이드 약품 사용과 외래에서 COPD 관련 의약품을 이용한 환자임

1) Chung et al, Evaluation of Appropriate Management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in Korea: Based o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HIRA) Claims. Tuberc Respir Dis 2017; 80(3)

3. 연구 결과

- 전체 6,722개 요양기관, 142,790명의 환자, 733,165건의 처방전을 평가함
 - ▶ 전체 환자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이용 환자수가 66.84%, 의원 이용 환자 수가 25.03%임
 - ▶ 남성은 72.75%, 60~70세 환자는 66.2%임
- COPD 환자의 평가지표는 폐기능 검사 시행률, 장기 외래 환자 방문의 평균 비율, 흡입형 기관지 확장제 처방 환자 비율, 폐기능 검사(Pulmonary function test, PFT) 장비 유지율, COPD로 인한 입원율, COPD와 관련된 응급실 방문 비율, 호흡기 질환내 COPD 또는 천식의 점유율임
 - ▶ 폐기능 검사 시행률은 상급종합병원 82.3%, 종합병원 68.43%, 병원 52.35%, 의원 42.36%임
 - ▶ 기관지 확장제 처방률은 상급종합병원 92.61%, 종합병원 80.04%, 병원 60.41%, 의원 40.46%임
 - ▶ PFT 장비의 평균 유지율은 전체 64.31%,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98.27%, 병원 87.46%, 의원 62.26%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COPD 평가는 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COPD 관리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임
 - ▶ 본 평가를 통해, 실제 임상에서 COPD 환자가 PFT 장비로 적절하게 진단받고, 적절한 흡입형 기관지 확장제를 처방받았는지 확인 가능
 - ▶ 각 요양기관별 COPD 환자의 입원율과 응급실 방문율 확인 가능
 - ▶ 이러한 평가를 통해 현재의 COPD 진단 및 치료 상황을 알게 되고, COPD 환자에 대한 임상 가이드라인과 실제 치료의 차이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됨

[표 1] COPD 주요 평가 지표 산출결과

	전체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PFT 시행률, %	62.5	82.3	68.4	52.4	42.4
장기 외래 환자 비율, %	92.1	91.5	94.2	93.5	88.4
흡입 기관지 확장제 처방률	71.2	92.6	80.0	60.4	40.5
COPD로 인한 입원율, %	13.1	13.9	18.7	23.0	5.1
COPD로 인한 응급실 방문율, %	6.3	8.4	9.2	5.7	2.4